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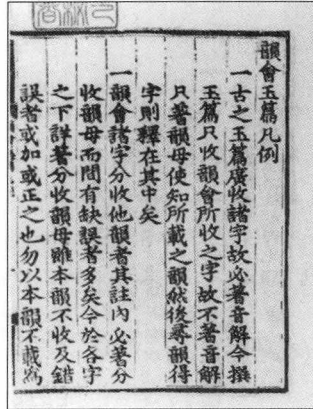
일본문화의 젓줄 이론 우리 옛책

임진란 때 술한 전적·동활자 앓아가 출판혁명 이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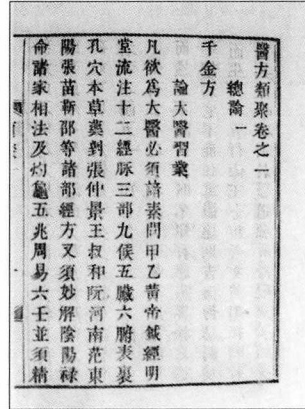
지난호에서 세계초유의 의학백과사전인 《의방유취(醫方類聚)》의 초간본(을해자본) 30질 가운데 오직 임진왜란 때 왜장 가등청정이 약탈해간 1질만이 일본에 현존하고 있다고 했지만, 일찍이 《조선의학사》를 쓴 미키(三木榮)라는 일인 학자는 “조선에서 간행된 의학서적들의 대부분이 조선에서는 눈에 띄지 않고 일본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는 비단 의학서적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다.

임진왜란(1592~98) 중에 왜군이 막대한 양의 우리 전적(典籍)을 약탈해간 것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그네들은 무식한 군졸들이 마구잡이로 훔쳐간 것이 아니라 계획적·조직적으로 우리 관청이나 명문가의 장서를 살살이 훑어갔다. 그때 앓아간 조선책들은 오늘날 일본의 각 중요 도서관 문고에 보존되어 있는데, 고 이흥직 박사는 “그 모든 책이 거의 전적(全帙)일 뿐 아니라 조선관계 서적보다 중국관계의 조선본(朝鮮本)이 더 많다는 점, 그 조선본의 장서인이 모두 당시 조선 명가(名家)의 것이라는 점”을 그 증거로 지적했다.

일본측이 우리나라에서 약탈해간 전적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그 전모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다만 일본에 현존하는 우리나라의 옛책에 대하여는 일찍이 이흥직·김동욱·이우성·천혜봉 교수 등이 관심을 가지고 부분적으로 조사한 일이 있고, 가장 최근에는 심우준 교수(중앙대)가 일본의 궁내성 도서관을 비롯한 15개처에 수장돼 있는



《운회옥편》 범례 부분과 《의방유취》 총론 부분.



한국판 전적 464종(4,942책)을 조사한 바 있다. 심교수에 따르면, 그중 80%가 넘는 387종이 임진왜란 이전에 우리나라의 공식 출판기관인 교서관에서 간행된 것으로 서지학적·국보·보물급에 해당하는 귀중본이며, 또 그중 132종은 국내에 없는 책이다.

그중에는 조선초기에 간행된 계미자본·갑인자본·을해자본 등도 상당수 눈에 띄는데, 가령 중종 때 최세진(崔世珍)이 편찬한 옥편인 《운회옥편(韻會玉篇)》(1536·을해자본)에는 “이 옥편은 수길(秀吉)이 조선을 정벌할 때 가지고 온 책자 중 하나로 진서(珍書)”라는 19세기말 일인 학자의 감정이 가 붙어 있어 임진란 당시의 약탈본임을 스스로 밝히고 있다.

앞서 말한 《의방유취》(총252책)의 원본(초간본)은 현재 일본 궁내성 도서관에 있는데, 일인들은 이를 1852년 목활자 축쇄판으로 재간행하여 1876년 강화도조약 체결 때 거꾸로 우리나라에 2질을 기증, 현재 서

울대 장서각과 연세대도서관에 각각 1질씩 보관돼 있다.

임란 당시 왜군은 전적만이 아니라 많은 동활자도 약탈해 갔다. 풍신수길은 이를 그네들 국왕에게 바쳤고, 1593년 이 활자로 《고문효경(古文孝經)》이란 책을 찍어냈다고 일본측 문헌은 밝히고 있다. 그뒤 1597년에는 우리나라의 동활자를 모각(模刻)한 목활자를 만들어 많은 책을 찍어냈으며, 1615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네들 스스로가 동활자를 만들어 처음으로 활자본을 간행함으로써, 16세기 말엽까지 목판인쇄가 고작이었던 일본에 출판혁명이 일어났던 것이다.

일본의 활자본 출판은 이른바 문목·경장시대(1592~1614)에 비롯되어 1640년에 일단 중단되고 다시금 목판인쇄가 부활하는데, 그 약50년간의 활자본을 일본의 서지학계에서는 ‘고활자판’이라 부르고 있다. (W)

출판저널

통권 제219호 / 1997년 8월 20일 발행

발행인 — 정진숙
 편집인 — 전병석
 인쇄인 — 이일수
 편집위원 — 권영빈 김문환
 송상용 이중환
 편집주간 — 이승우
 편집장 — 김지원
 기자 — 박남정 마정미
 이현주
 디자인 — 윤정자
 사진 — 한준호

업무부장 — 윤동호
 업무·광고 — 이희천 김유희
 김동필 천창환

(재)한국출판금고
 삼임이사 — 최학수
 총무부장 — 이정수
 전화: 732-1434~5

등록 1987년 6월 9일-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 — (재)한국출판금고
 인쇄처 —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출판저널: 110-190 서울 종로구
 시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FAX 722-1174
 하이텔: chulpan 천리안 book 732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출판저널》 정기구독 안내

매월 5일과 20일자로 발간되는 《출판저널》은 정기구독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빠르고 편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년차 구독료 40,000원을 송금하 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택이나 사무실로 우송해드립니다.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수협·축협 포함)의 A지로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하여 불입하거나 우체국 대체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공급: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

‘그 책 쓸만해?’

원서샘플링 · 운문 · 영한번역

박운정 / 번역가

TEL/FAX 723-4647 B·P 015-103-9200

지형(필립)/원고구함

(전문서적 · 사전류)
오래된 것도 괜찮음

02)636-2911

담당 : 손경주

사원모집

편집 경력 3년이상
매킨토시 사용자 우대

이력서 . 자기소개서 지참 내사요
.....

경리 컴퓨터 가능자



서울시 종로구 낙원동 280-4 건국빌딩 1-305호/Tel. 738-0931~2